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천안함 침몰 원인이 외부충격으로 좁혀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함미 절단면 등 선체 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술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아직 침몰원인에 대한 세부론 예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설이 무성했던 침몰원인의 가다가 잡히면서 정부의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사적 보완만으로 부족

사상 유례없는 이번 사건을 겪은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안함 사건 자체보다 초기 대처 과정의 미숙함과 잇따른 군 관련 사고는 국민들에게 더 깊은 허탈감과 신뢰의 상실감을 안겨왔다. 천안함 침몰 당시 군 수뇌부는 최고대비태세가 발령된 비상상황을 1

시간 가까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지휘보고 및 작전 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다면 그 참화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사기를 먹고 산다'는 군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민간인이 합동조사위원회 공동단장을 맡았고 지휘보고체계와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파헤치기 위해 감사원까지 나서게 됐다.

국가안보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 추궁

과 함께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이 요구된다.

현 정부 출범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역과 이념·계층 간 갈등 외에 도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MB정부가 추진해왔던 각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꼬

그러나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수 국민들에게 녹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들 간 거리가 아직 멀기 때문이다.

국민이 함께 뜻 모아야

천안함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시련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기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보다 빠른 시간내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프랜시스 풀린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위기일수록 조직원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진실에서 우러난 대통령과의 잦은 커뮤니케이션이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적 쇄신도 국정 의중을 바로 잡고, 최고경영자형 리더십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군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위대한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논설위원) ajkim@kwangju.co.kr

위기일수록 소통하라

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갈등은 난국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갈등을 녹이려면 소통과 배려,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촛불 시위를 경험했던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서민을 강조하고 시장을 찾아가 하면 과거 대공황기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것처럼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라디오 연설을 했다.

시설

보육여건 개선없이 출산율 높일 수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자녀 양육비 부담 감소를 비롯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장진군은 산부인과 유치에 나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 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복지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야 하나 초과 근무수당 등 경비 부담으로 오후 7시 이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공무원 퇴근 시간 보다 빠른 5시30분에 어린이들을 돌려보내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만 탓할 수도 없다.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만큼 비용과 인력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더불어 내수 위축, 경제활력 저하 등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경제·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지난 사고교육비 부담 때문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겠다는 풍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보육여건 개선과 사교육 경감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출산 장려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이나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없이는 저출산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남에, '성관계'까지 도를 넘어서 경찰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관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간부 경찰은 유혹업소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피의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돈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나모 경장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A(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양은 가출한 상태였다. 나 경장은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가 A양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A양과의 대질신문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나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북부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피의자를 단속하고 가출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경찰관이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숨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경찰에 구속된 광주 서부경찰서 이모 경위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관할구역인 서구 모 유혹업소 업주 B씨로부터 10만~3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특히 B씨가 세금 포탈혐의로 구속되자 1천 200만원을 석방 대가로 받았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팔긴 썩는다.

우리가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법 집행의 최일선이자, 질서와 치안 유지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망가지면 법 질서는 바로 설 수 없고 신뢰 또한 무너지기 마련이다. 경찰이 제 직무를 감싸고 돈다면 오히려 화를 키울 뿐이다. 또한 고질적인 관할구역에서의 상납 고리를 끊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명예가 매도될 수는 없질 않는가.

無等鼓

"그 섬은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 자연 경관은 아름답고, 문명 수준 또한 높다. 모든 건물은 금과 은으로 장식됐고, 농산물을 비롯한 자원도 풍부하다. 이 나라는 완전한 이삼국 가였으나 지진과 해일로 단 하루 밤과 낮 사이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플라톤이 기원전 355년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처음으로 쓴 1만2000년 전쯤

지고, 연무가 발생했으며, 화산재가 날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지난 14일 아이슬란드 에이야프랴라요르 화산이 폭발, 화산재가 유럽을 뒤덮고 23일쯤엔 우리나라 상공까지 날아왔고 있다. 화산재는 마그마 속에서 냉각되고 고체로 남아 있어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항공기 엔진 속에 반죽처럼 끼이기도 하고 조종석 유리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항공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화산 폭발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해다. 대규모 화산폭발은 자연과 기후에 영향을 줘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 과학자들은 이번 폭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뒤 생태계 변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고작이다. 지진에 이어 화산 폭발 등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앙에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은 극히 미미하다.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했다고 하나 아직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태반이다. /고령서 사회2부장 ksgo@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info.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래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권력이 필요할까? 혹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필요할까? 영화 <레인맨>, <백시> 등의 특급 프로듀서로 유명한 마크 존슨은 이 질문에 대해 단 한 곡의 노래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 수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마크 존슨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거리를 걷던 중 길거리의 악사가 기타를 치며 부르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다. 당시 들은 노래는 Ben E. King의 명

래하는 '우리 주변의 아마추어 악사들'은 단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못한 채 그녀의 노래로 국경과 언어를 단번에 뛰어넘는 놀라운 순간을 연출한다.

게다가 마크 존슨은 앨범명과 같은 공익재단을 발족하여 수익금으로 남아공과 인도, 네팔 등 소외 지역에 작은 음악 학교를 세우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주었던 로저 리틀리가 2005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 앨범

세상을 바꾼 단 한 곡의 노래

곡 'Stand by me'. 노래를 부르던 거리 악사는 흑인 젊은 가수 로저 리틀리. 로저 리틀리는 'Stand by me' 원곡이 자신이 직접 쓴 가사를 덧붙여 소울 창법으로 노래한다. 그가 개사한 가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 당신이 누구이건 /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있건 /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 많은 친구를 가졌어도 / 결국 당신은 당신 곁에 있어 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마크 존슨은 로저 리틀리가 길거리에서 부르던 '스탠 바이 미'를 녹음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발이다. 기발한 프로젝트를 세운다. 전세계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길거리 가수, 연주자들에게서 '스탠 바이 미'를 녹음하여 이를 하나로 엮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작업시간을 거쳐 전무후무한 '전세계 거리 악사들의 협연'이 탄생한다. 그 앨범이 바로 <Playing for Change>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부터 남아프리카, 인도,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 공원, 뒷골목에서 연주하고 노

는 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요, 서민이라고, 그렇기에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저 살아갈 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큰 계도가 바뀌거나, 대통령과 같은 거대한 권력이 바뀌어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바뀐들, 국회의원이 바뀐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버리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따름인 것이다. 변화는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나 자신 속에 이미 담겨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작고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은 아닐까. 믿을 수 없던 당장 유튜브에 접속하여 <Playing for Change> 동영상상을 감상해보시라. 단 한 곡의 노래가 당신의 막막했던 가슴을 옹동치게 할 것이다. <은펜칼럼니스트>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도시 주변 하천 중금속 오염 야생나물 주의력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광주천, 황룡강 하천 등의 주변에서 자라는 봄나물을 뜯는 주민들이 적잖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과연 먹으려고 뜯는 절개, 아니면 집에서 일없이 지내기 때문에 그 무로함을 달래려고 뜯는 절개 궁궁예 한 짝이 한두 번이 아니다.

왜냐면 대도시 근처 하천변의 식물은 도심의 온갖 먼지와 차량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의 공해 때문에 각종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그러므로 도시 주변 하천의 나물은 뜯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 속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함유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나물을 뜯어서 시골에서 뜯은 거라퍼 시장에 파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렇다고 봄나물 한 두먹 사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중금속 오염 여부를 가리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

봄나물 새싹이 나올 때 제철에 먹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은데 정말 중금속 오염 덩어리인 대도시 하천변 야생 봄나물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기고

강정화



쌀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영양 섭취원이며 주식으로, 조선시대까지도 쌀밥을 '옥(玉)밥'이라 했고 물에 말은 흰밥을 '운자백'이라 해 하늘에 뜬 구름과 비유할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쌀은 밀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라이신 함량이 높고, 쌀 단백질은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과 달리 소화장애나 아토피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다른 단백질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낮게 유지해 준다. 또

농부의 여든여덟번 정성이 가져다 준 건강

쌀은 식이섬유 중 '헤미셀룰로오스' 효소작용으로 '아라비노시탄'(오란당 고분자)이 생생해 발아현미로 섭취했을 때 면역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쌀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손색이 없지만 간편식을 선호하는 음식문화 등 식생활의 서구화와 아침밥을 먹지 않는 젊은 층이 늘고 있어 지난해에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4kg 정도로 감소해 쌀과 함께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가 절실하게 요구됐다.

지난해 쌀가공 식품시장 규모는 1조 8천억여원으로 전체 식품 매출액의 3% 정도이며 품목별로는 떡류가 60%로 가장 많고, 주류 10%, 밥류 9%, 쌀가루와 쌀가루 시장이 3%로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밀가루 대체성이 높은 국수와 라면류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에 쌀가공 시장 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한 것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 결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쌀 가공량은 생산량의 5% 정도로 일본의 15%에 비해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일본 역시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밥동반과 무균 포장밥 등 가공밥, '아라레'와 '센베이' 등의 전

통 과자류와 미세 쌀가루로 만든 면과 빵 등 쌀가루 소비량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쌀을 이용한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지만 쌀가루는 밀가루의 3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 '글루텐' 성분 등이 없어 가공성이 떨어지는 등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고미를 가공용 원료로 공급하고 소비

나 가공업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쌀가루 제분업체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 비교적 수요가 많은 단체급식이나 외식산업의 메뉴에 밀가루 대체효과가 높은 쌀면과 쌀국수 보급 외에 쌀이 지닌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쌀 가공제품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전남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에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거지 제조용 쌀가루와 신세대 취향에 맞는 쌀 파스타 제조방법 외에 막걸리 열풍에 맞춰 기능성 쌀막걸리와 쌀겨의 기능성을 이용한 과자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엔제류가 비만에 대한 걱정들이 한 임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지만 쌀의 한자 '미(米)'자가 '쌀 한 톨을 만들어 내는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일년내내 농부의 땀으로 일궈낸 쌀이 가져다준 소중함에 대해 농사철을 맞이하여 한번쯤 새겨 보고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쌀 소비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남농기원 식품연구소 식품공학박사>

이제 칼국수 세계화 눈 돌릴 때

칼국수는 모두가 즐겨 먹는 식사이고, 시내 식당 혹은 분식집 어디를 가봐도 쉽게 만나 들어 팔고 있다. 이제는 우리 칼국수를 베트남 쌀국수, 이탈리아의 파스타, 일본의 우동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국수의 반열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미 한식의 세계화를 선포해 우리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이제 칼국수의 세계화도 추진해보자.

칼국수는 어떤 재료로 국물을 내고 고명을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해진다.

닭칼국수, 맛칼국수, 바지락칼국수, 굴칼국수, 팔칼국수, 된장칼국수, 버섯칼국수 등이 있으며, 면을 만들 때 섞는 재료에 따라서도 메밀칼국수, 도토리칼국수, 녹차칼국수 등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다.

우리도 칼국수 '소울 푸드'라 일컬으며 각 지역별로 독특한 우동을 발전시켜왔으며, 세계 어느 곳든 면을 먹고 있다는 것을 겨냥해 우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도 칼국수를 일본의 우동에 뒤지지 않게 육성시키고 세계화에 힘써보자.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